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의 비판적 검토

— 진(秦)의 기원과 관련하여

김 병 준*

[국문초록]

본고는 진의 기원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자료로 떠오른 「계년」 제3장의 기록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함으로써, 진의 ‘동래설’을 논박하고자 했다. 진의 ‘동래설’은 이미 서주시기에 농서 지역에 중원문화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고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 『진본기』에서 진의 조상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동일한 영성에 속하는 많은 씨족이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계년」에 나오는 상염지민을 ‘진의 선인’으로 읽어 이들이 진의 기원이라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첫째, 진의 옛 땅인 농서 지역의 지리 환경을 보면, 농산에 의해 중원과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었으며,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둘째, 『사기』 『진본기』 중 진의 분봉 이전 기록은 기본적으로는 주로부터 분봉을 받은 진의 제후를 기준으로 그 직계 조상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라는 관심에서 기술하되, 계보를 따라가는 중간에 방계 조상 중 ‘중국’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이들을 추가 기재하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주제어: 진 동래설, 청화간, 계년, 사기, 진본기
秦 東來說, 淸華簡, 繫年, 史記, 秦本紀

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본기』의 내용은 마치 진의 조상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뿐이다. 셋째, 『사기』 「진본기」와 「계년」은 근본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므로, 양자의 내용 일부를 적당하게 절충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계년」에는 여러 기존 문헌의 기록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 확인되므로, 「계년」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곤란하다. 「계년」 기록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계년」의 상업지민은 비림의 종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주가 상업씨를 멸망시킨 이후 종족 분산 정책에 의해 그 곳의 사람들을 주의 다른 지역으로 천사했을 뿐이다. 따라서 상업지민은 진 분봉 이전에 미리 천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존의 독법처럼 상업지민을 뒤편의 ‘진선인’과 붙여 읽게 되면, ‘진선인’은 단지 ‘진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자들’ 즉 진 일반인의 조상 중 일부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필자는 상업지민과 ‘진선인’을 떼어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진선인’을 진 제후의 조상이라는 정상적 용법으로 읽을 수 있으며, 주의 천사 정책이라는 수동적 방법이 아니라 진이 주체적으로 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진이 춘추 시대에 강대해졌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계년」의 서사 목적이기도 하다.

1. 머리말

진(秦)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늦다. 주(周)의 봉건(封建)을 기준으로 보면, 진(晉), 루(魯), 제(齊), 정(鄭) 등 중원의 제국(諸國)은 물론 초(楚), 오(吳), 월(越) 등에 비해서도 늦다. 문화적 수준도 중원의 여러 나라에 비해 크게 다르고 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적시(夷狄視)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 이들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 거대한 제국(帝國)을 만들었고 한(漢)이 이를 계승했기 때문

에, 사마천(司馬遷)은 진을 하상주(夏商周)에 이은 정통 왕조로서 본기(本紀)에 자리매김 하였다. 진이 하상주에 이어 본기에 기록되었지만, 중원의 여러 나라와 달리 문화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이질적인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이러면서 이른바 진인(秦人)의 ‘동래설(東來說)’ ‘서래설(西來說)’ 논쟁이 시작되었다. 왕국유(王國維)와 같이 『사기』와 같은 전래 문헌기록에 근거하며 ‘서래설’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진을 어떻게든지 ‘중국’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진의 기원을 동방에서 찾으려고 하였다.¹⁾ 일찍이 서옥생(徐旭生)이 진의 조상을 동이(東夷) 집단이라고 주장한 뒤, 1930년대에는 고희강(顧頡剛)이 그리고 이어서 전목(錢穆), 임검명(林劍鳴) 등 많은 연구자가 이 의견을 따랐다. 그 근거로는 상(商)과 진(秦) 모두 현조(玄鳥) 전설을 갖고 있고, 모두 소호(少皞)를 제사 지냈으며, “주(周)가 삼감(三監)의 난을 진압한 뒤 이들을 회하(淮河) 및 섬서(陝西)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는 『일주서(逸周書)』의 기록을 들었다.²⁾ 하지만 『사기』 진본기에는 ‘동래설’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몽문통(蒙文通) 등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사기』에 근거하여 ‘서래설’을 견지하였고, 논의는 지리한 공방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80년대부터는 고고학 발굴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³⁾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못해, 연구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할 뿐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이하 「계년」으로 약칭)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학근(李學勤)은 「계년」 제3장

- 1) 동래설과 서래설과 관련한 王國維, 蒙文通, 衛聚賢, 林劍鳴 등의 글이 모두 禮縣秦西垂文化研究會·禮縣博物館(2005), 『秦西垂文化論集』, 北京: 文物出版社에 수록되어 있다.
- 2) 黃留珠(1995), 「秦文化二源說」, 『西北大學學報』 1995-3, pp. 28-34.
- 3) 趙化成(1989), 「甘肅東部秦和羌戎文化的考古學探索」, 『考古類型學的理論與實踐』, 北京: 文物出版社, pp. 145-176.

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의 ‘동래설’과 ‘서래설’의 교착상태가 『계년』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⁴⁾ 『계년』에 의하면, 비렴(蜚廉)⁵⁾이 삼감(三監)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동쪽의 상엄(商奄)으로 도망가자 주 성왕이 그를 죽이고 상엄지민(商奄之民)을 주어(朱圉)로 옮겼는데 이들이 진(秦)의 선인(先人)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주어는 지금의 감숙성 감곡(甘谷) 모가평(毛家坪) 유지에 해당하므로⁶⁾ 진의 ‘동래설’이 옳다는 것이다. 출토 문자자료에 의해 진의 선인이 상엄지민이라고 했고, 고고학 발굴에 의해 진의 고지(故地)에서 중원문화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학근의 주장은 국내외 상당히 많은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확실히 『계년』은 그동안 선진시기 역사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1차 자료라 할 수 있는 출토 문자자료라도 이에 대한 꼼꼼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고고학 자료의 경우에도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헌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 쉽다. 특히 종족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출토자료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무분별한 고고학 자료와의 결합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전래 문헌도 그다지 세밀히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기왕에 무척이나 많은 연구가 전래 문헌에 근거해서 진행되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사료만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뿐 텍스트를 관통하는 큰 논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본고는 진의 기원과 관련하여 학계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계년』 제3장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4) 李學勤(2011), 「清華簡《繫年》及有關古史問題」, 『文物』 2011-3, pp. 70-74.

5) 『史記』 卷5 「秦本紀」의 蜚廉과 동일인물이다. 이하 혼동을 피하기 위해 蜚廉으로 통일한다.

6) 李學勤(2011), 「談秦人初居“邾吾”的地理位置」, 『出土文獻』 2, pp. 1-5.

1장에서는 진의 고지로 알려져 있는 농서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고고학 자료에 대해 주목하려고 한다. 농서 지역과 관중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대한 이해는 진 고고학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진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료인 『사기』 「진본기」의 기록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진본기」 초반 기록을 관통하는 사마천의 서사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의 선택적 사료 이용으로 인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계년」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계년」 기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본기」 및 기타 문헌기록과의 비교, 용어 사용의 특수성, 끊어 읽기 측면에서 이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진의 지리 환경과 문화

2.1. 농서와 관중의 교통로

중국 지도를 펴고 관중 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에 진령(秦嶺) 산맥이 한중(漢中)과의 사이에 있고, 북쪽으로는 황토고원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서쪽으로 육반산(六盤山)과 농산(隴山)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 농서 지역으로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다. 『사기』 화식열전에서 관중을 “견하(涇河)와 웅(雍)으로부터 동쪽으로 황하와 화산(華山)까지”로 정의하며, 농서·천수·북지 지역과 구별한 것도 농산이 두 지역을 크게 나눠놓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런가 하면 관중을 관통하는 위하(渭河)는 동쪽으로

7) 『史記』卷129 「貨殖列傳」, “關中自涇·雍以東至河·華, 膏壤沃野千里, 自虞夏之貢以為上田 …… 天水·隴西·北地·上郡與關中同俗, 然西有羌中之利, 北有戎翟之畜, 畜牧為天下饒”, pp. 3261-3262.

황하와 만나 중원으로 흘러 내려가고, 서쪽으로는 감숙성 동부 천수의 상류 지역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도만 놓고 보면, 위하의 수로를 이용하면 섬서성 보계와 감숙성 천수를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곳을 직접 답사해 보면 이 곳을 왕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⁸⁾ 이 두 지역 사이를 흐르는 위하는 다른 상류나 하류보다 훨씬 급하게 굽이치며, 강 양쪽을 따라 굽이굽이 매우 좁은 길이 있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의 소도(小道)로 겨우 쓰일 뿐이다.⁹⁾ 그 때문에 사서(史書)에는 이 길을 통해 왕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삼국(三國)시대와 같은 전란기에 긴급한 군사행동을 할 때 겨우 기록에 나오기는 하지만¹⁰⁾ 그것도 적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기습하기 위해서였다.

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통로는 위하를 따라서가 아니라 농산을 넘어가는 길이었다. 한대에 농산을 횡단하는 길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후한 건무 8년(A.D. 32년) 봄, 래흡(來歙)과 정로장군(征虜將軍) 제준(祭遵)이 략양(略陽)을 급습했다. 제준은 도중에 병이 나서 돌아왔고, 정병(精兵)을 보내 래흡을 따르도록 했다. 모두 2천명이 산의 나무를 베어 길을 내었다. 번수(番須)와 회중(回中)으로부터 략양에 이르러 외효(隗囂)의 장수 금량(金梁)을 베고 그 성을 차지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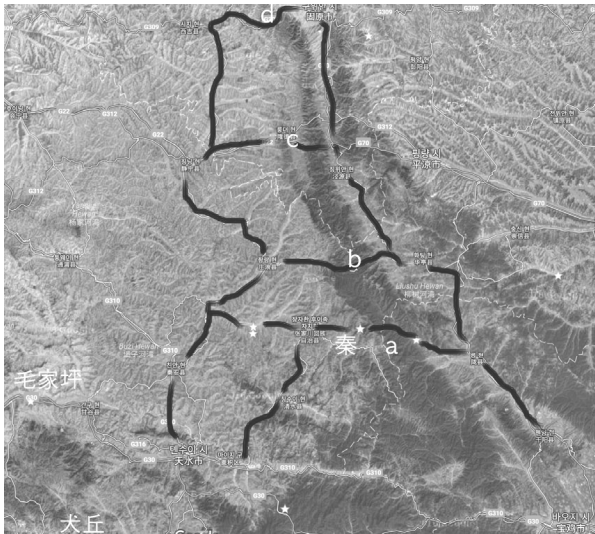
8) 필자는 2014년 여름 李開元 교수와 藤田勝久 교수 및 대학원생과 함께 해당 지역을 두루 답사한 바 있다. 이곳의 지형과 교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지점을 얻게 되었다.

9) 張國藩(2013), 『隴山古道遺址』, 『檔案』 2013-6, p. 29.

10) 『三國志』 魏書 卷9 『夏侯淵傳』, “使張郃督步騎五千在前, 從陳倉狹道入, 淵自督糧在後. 郃至渭水上, 超將氏羌數千逆郃. 未戰, 超走, 郃進軍收超軍器械. 淵到, 諸縣皆已降.”, p. 271.

11) 『後漢書』 卷15 『來歙傳』, “八年春, 歙與征虜將軍祭遵襲略陽, 遵病還, 分遣精兵隨歙, 合二千餘人, 伐山開道, 從番須·回中徑至略陽, 斬囂守將金梁, 因保其城.”,

(b)후한 건무 8년(A.D. 32년) 봄, 래흠이 산길을 따라 락양성(略陽城, 지금의 張家川)을 습격하여 차지했다. 외효가 두렵고 놀라 왕원(王元)에게 ㉠농저(隴坻)를 막고, 자신은 ㉡번수구(番須口)를 지키고, 왕맹(王孟)은 ㉢계두도(鷄頭道)를 막고, 우감(牛邯)은 ㉣와정(瓦亭)에 주둔하도록 한 뒤, 래흠을 포위했다.¹²⁾



[그림 1] 농산 교통로 및 진 지역

이 두 기록은 래흠이 농산의 동쪽 편에 위치한 번수와 회중으로부터 산길을 내서 농산을 넘어 서쪽 편에 있는 락양성을 차지하자, 외효가 농산의 동쪽 편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모두 막는 전략을 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b)에는 남쪽으로부터 ㉠는 농저도(隴坻道), ㉡는 번수도

p. 587.

12) 『後漢書』卷13『隗囂傳』“八年春, 來歙從山道襲得略陽城. 囂出不意, 懼更有大兵, 乃使王元拒隴坻, 行巡守番須口, 王孟塞雞頭道, 牛邯軍瓦亭, 囂自悉其大眾圍來歙.”, p. 528.

(番須道), ㉓는 계두도(鷄頭道), ㉔는 와정도(瓦亭道)라고 불리는 교통로가 제시되어 있다(그림 1 참조). (a)에 따르면 이때 비로소 변수도가 개척되었고, 나머지 3개의 길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계두도는 이미 『사기』에 적힌 진시황의 첫 번째 순행 기록에 보인다.

27년, 시황이 농서와 북지를 순행하였다. 계두산을 나와 회중을 지났다.¹³⁾

이개원(李開元)은 회중을 지금의 농산 동측 일대인 견수(涇水) 상류의 지명으로 보고, 계두산을 역도원(酈道元)의 설에 따라 대농산(大隴山)의 별명으로 이해했다.¹⁴⁾ 그리고 이 기록을 진시황이 장안에서 서현(西縣, 지금의 감숙성 禮縣)으로 가는 노정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상기 (a)의 기록에서 변수와 회중의 두 지명이 병렬되어 있기 때문에 회중은 변수도의 바로 동쪽 편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b)의 기록에 의하면 계두산은 회중보다 북쪽 편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명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이 기록은 진시황이 농서와 북지를 순행하러 갈 때의 노정이 아니라 순행을 끝내고 계두도를 넘어 장안으로 돌아올 때의 노정을 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

와정도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교통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던 것은 가장 남쪽에 있었던 농저도이다.¹⁵⁾ 이 길은 견하가 위하와 만나는 ‘견위지회(涇渭之會)’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농산의 농관(隴關, 大震關, 지금의 固關鎮)을 거쳐, 농산의 서쪽 편에 있는 궁문寨(弓門寨, 지금의 恭門)와 농현(隴縣, 지금의 張家川鎮)에 이른다. 여기서

13) 『史記』 卷6 「秦始皇本紀」, “二十七年, 始皇巡隴西·北地, 出鷄頭山, 過回中.”, p. 241.

14) 李開元(2016), 「秦始皇第一次巡遊到西縣告廟祭祖說」. 『인문논총』 73-3 참조.

15) 劉滿(2005), 「秦漢隴山道考述」, 『敦煌學輯刊』 2005-2, p. 265.

진안현(秦安縣)의 농성(隴城)을 지나 천수로 오는 길과,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와 청수현(淸水縣)을 거쳐 천수로 오는 길로 나뉜다. 이 노선을 따라서 『사기』 진본기에 나오는 진의 초기 지명이 확인된다. 주 효왕(孝王)이 비자(非子)를 불러 말 사육을 담당하게 했고 결국 비자에게 토지를 나누어줘 읍을 만들어 거주하게 했던 곳이 진읍(秦邑)인데, 『한서』 지리지에서는 이 곳을 농산의 서쪽편에 있는 장가천현과 청수현 부근에 있는 한대의 진정진곡(秦亭秦谷), 즉 농저도의 길목에 비정하였다.¹⁶⁾ 그런가 하면 춘추시대 초기 진이 서수(西垂)로부터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도 역시 이러한 노선을 따라 전개되었다. 문공(文公)은 ‘견위지회’에 이르러 이곳에 다시 읍을 만들었으며,¹⁷⁾ 녕공(寧公)과 무공(武公)이 그 주변인 평양(平陽)에 도읍하였고,¹⁸⁾ 덕공(德公)이 견하를 거슬러 올라 웅성에 도읍했다.¹⁹⁾ 앞서 언급한 진시황의 첫 번째 순행도 농서로 빠져나가 서현(西縣)으로 갈 때에는 이 길을 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관중 지역과 농서 지역 사이에는 험준한 농산이 가로 막고 있었으며, 위하로 왕래가 어려웠던 만큼 이 농산을 넘어가는 교통로를 이용하여야만 교통할 수 있었다.²⁰⁾ 이렇게 농서지역이 중원과 지리적으

16) 『漢書』卷28下「地理志」, “孝王曰:「昔伯益知禽獸, 子孫不絕」乃封為附庸, 邑之於秦, 今隴西秦亭秦谷是也.”, p. 1641.

17) 『史記』卷5「秦本紀」, “文公元年, 居西垂宮. 三年, 文公以兵七百人東獵. 四年, 至汧渭之會. 曰:「昔周邑我先秦嬴於此, 後卒獲為諸侯。」乃卜居之, 占曰吉, 即營邑之.”, p. 179.

18) 『史記』卷5「秦本紀」, “寧公二年, 公徙居平陽.”, p. 181; “武公元年, 伐彭戲氏, 至于華山下, 居平陽封宮.”, p. 182.

19) 『史記』卷5「秦本紀」, “德公元年, 初居雍城大鄭宮.”, p. 184.

20) 敦煌 懸泉置漢簡에는 장안에서 河西四郡에 이르는 노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안에서 涇陽을 거쳐 高平을 지나가는 북쪽 노선이고, 또 하나는 장안에서 寶鷄를 거쳐 汧河를 따라 올라가다가 隴山을 넘어 張家川-天水로 가는 남쪽 노선이다. 張俊民(2007), 「簡牘文書所見“長安”資料輯考」, 『簡帛網』(武漢大) 2007.12.08.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757; 胡平生·張德芳(2001),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 “□至鬱夷卅五里, 至池陽卅里, 池陽至□安五十五里

로 격절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양자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따라 진의 초기 지명과 이동 노선이 일치한다는 것은 곧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색이 강한 문화가 발전되었고, 그것이 진문화였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데, 이하 이를 더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자.

2.2. 농서 지역의 고고학자료

이렇게 관중과 농서가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지역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 후기 이후 지역간 문화적 교류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도 줄어들었을 것이지만, 격절된 지리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류의 속도와 규모는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이래 관중 지역에서는 앙소문화와 용산문화가 형성되었지만, 농서 지역에서는 이들과 문화유형이 다른 대지만(大地灣)문화, 마가요(馬家窑)문화, 제가(齊家)문화가 이어졌다. 서주시기가 되어도 농서 지역에서는 신점(新店)문화가 발전하였는데, 그 문화 성격은 관중 지역의 서주문화와 구별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양 지역 사이의 고고학문화는 별개의 문화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진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농서 지역에서 관중 지역의 서주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유지가 감숙성 감곡현(甘谷縣)의 모가평(毛家坪) 유지이다.²¹⁾ 그 논의의 당위 여부를 살펴보자.

서주시기 모가평 유지는 거주지가 대부분 파괴되고 회갱도 작아서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묘장은 장방형 수혈토갱묘가 위주인데, 대부분 서향이고, 수장품은 모두 일상용 토기였으며, 장식(葬式)은 굴지장(屈肢葬)을 보인다. 그런데 거주지와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관중 지역 서

... □□至略陽卅五里，略陽至街泉五十五里” II T0315①: 35.

21) 甘肅省文物工作隊·北京大學考古學系(1987), 『甘肅甘谷毛家坪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87-3, pp. 359-396.

주문화와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모가평 유지에서 출토된 연당력(聯檔鬲), 승문심복분(繩文深腹盆), 어깨가 꺾어진 증(折肩甗), 어깨에 새머리 형태의 손잡이가 붙은 승문관(繩文罐) 등이 풍호(豐鎬)지구 서주시기 유지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한데, 이것들은 관중지구 서주문화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형적인 기물이다. 또 모가평 유지에서 발견된 석부(石斧), 석도(石刀), 방륜(紡輪) 등 농업생산 공구는 그 형태가 관중지구 서주문화 유지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다. 매장 습속 면에서도 모가평 유지는 같은 시기 서주문화와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장방형 토갱수혈묘라는 사실, 이층대가 있고, 취사기와 음식을 담는 그릇, 물을 담는 그릇을 기본조합으로 하는 토기를 수장하였다.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한 연구자는 서주시기 감곡 모가평 유지 서주시기 유적을 서주문화의 지방유형으로 본다.²²⁾

그러나 서주시기 모가평유지는 서주문화와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점도 크다.²³⁾ 비록 토기 종류의 조합은 동일하지만, 기물의 구체적 형태는 크게 다르다. 서주 묘장에서는 연당력, 분당력(分檔鬲), 방동력(俶銅鬲) 등이 보이지만, 모가평 진묘에서는 단지 연당력만이 보인다. 두(豆)의 경우에도 서주묘장에서 나온 손잡이는 대부분 모(稜)가 있지만 모가평의 손잡이는 짧고 조잡하고 모가 없다. 서주 묘장에서 나온 도관(陶罐)은 대부분 현문절견관(弦紋折肩罐) 혹은 원견관(圓肩罐) 등인데, 모가평 유지의 것은 대구관(大口罐)이다.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묘장 습속에서 나타난다. 관중 지역의 서주 묘장은 상문화의 영향을 받아 묘저에 요갱을 파고 갱 내에 순구(殉狗)를 넣지만, 모가평 유지에서는 오직 한 군데 묘장에서만 요갱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갱내에서는 희생도 찾을 수 없다. 더 큰 차이는 장례 방식에서 드러난다. 서주문화 묘장의 절대 다수는 직지장(直肢葬)인데, 모가평 유지 묘장의 절대다수는 관중 지역 서주

22) 牛世山(1996), 『秦文化淵源與秦人起源探索』, 『考古』 1996-3, pp. 41-50.

23) 滕銘子(2002), 『秦文化 -從封國到帝國的考古學觀察』, 學苑出版社, pp. 52-53.

묘장에서 보이지 않는 굴지장(屈肢葬)이다.²⁴⁾ 굴지장은 매장 시점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뒤에 곧바로 시체를 꼭꼭 묶어야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세계관과 연관된 장례 습속 전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표지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서주문화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들은 토기의 종류, 그리고 그 조합, 농업생산 공구의 존재, 묘장의 기본적 형식에 불과하여 이를 굳이 사람의 이동에 따른 문화적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그 기물의 형태를 비롯해 매장 습속의 구체적 모습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서주시기 모가평 유지를 서주문화의 지방유형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곤란하다.

사실 유지의 규모가 크지 않은 모가평 유지가 서주 시기 농서 지역의 전체 면모를 대표할 수 없다. 모가평 유지에 바로 근접한 장소에 모가평 유지와는 문화적 성격이 크게 다른 동가평(董家坪) 유지가 발견된다는 점도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평 유지에서 서주문화적 요소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까닭은 이곳 문화적 특징 중에 농경문화의 요소가 드러나므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주 문화가 이곳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 서주 시기 농서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농경문화가 크게 쇠퇴하고 축목이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감숙성 예현(禮縣)에서도 서주시기 만기에서 춘추시대에 걸친 거주지와 성지(城址), 묘장이 발견되었다. 주요 유적은 서주 봉건 이후 서주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진 공실(公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 당시 진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다양한 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

24) 韓偉(1980), 「試論戰國秦的屈肢葬儀淵源及其意義」,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pp. 204-211; 王子今(1987), 「秦人屈肢葬仿像‘窟臥’說」, 『考古』 1987-12, pp. 1105-1106; 戴春陽(1992), 「秦墓屈肢葬管窺」, 『考古』 1992-8, pp. 751-756.

에서 중요하다. 이곳의 진묘(秦墓)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묘주를 모두 3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중 A류는 다시 2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군의 묘주는 부장된 청동예기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용정(用鼎) 제도를 중시하는 자, 즉 서주로부터 분봉받아 그 종법제도를 핵심으로 여겼던 공실 및 귀족집단이라고 판단된다. 제2군 중 제1조의 묘장에서는 비록 청동예기를 수장하고는 있지만 용정 제도가 중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 북방계 직인비수식(直刃匕首式) 단검 및 기타 청동병기가 출토된다. 따라서 그 묘주는 북방 유목민 계통과 어느 정도 연관을 갖고 있고, 군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청동예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로 여겨진다. 제2군의 제2조 묘장에는 청동병기가 없는 대신 청동예기가 수장되어 있어서 군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귀족들로 추정된다. 이 묘장의 장례 방식은 묘주가 직지장으로, 순인(殉人)은 굴지장으로 매장되어 있다. 묘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순인과 거마갱이 있으며 묘장에 청동예기가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2군 제1조보다는 제1군에 가깝다.

B류는 춘추중기의 중소형 묘장이 많은데, 방동도예기(倣銅陶禮器)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종류는 같은 시기 청동예기와 동일한데, 이와 동시에 일용 토기를 수장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례 방식은 굴지장이며 청동병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군사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된다. C류는 모두 굴지장의 장례 방식을 갖고 있다. 또 북방계 단검과 기타 청동병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나팔형 구연부 삼족관(三足罐)과 같이 서주문화 요소가 있는 토기 그리고 도부(陶釜)와 같이 파촉문화 요소가 있는 토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일반 평민의 신분으로서 북방계, 서주계, 파촉계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고 이해된다.²⁵⁾

25) 滕銘子(2002), pp. 71-74.

예현 유지는 지배층 중에 서주로부터 분봉을 받아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층과 북방계 유목민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군사귀족의 구분이 있다는 점, 일반민 중에서는 서주문화부터 파축, 그리고 북방계 문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주시기 이 지역의 문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즉 농서 지역의 진국은 어느 특정한 종족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이 구성하고 있었으며, 순장된 자를 비롯한 피지배층의 상당수는 굴지장이라는 특수한 장례 방식을 갖고 있었다.

또 이 지역을 비롯한 농서 지역에 관중 지역과는 다른 축목 혹은 유목의 습속이 크게 발전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숙성 서부 지역에 분포했던 신점문화의 경우 대량의 동물 뼈가 출토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제가문화 시기의 주민들과 비교하면 신점문화 시기 사람들이 더 많은 동물을 사육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이 보편적으로 돼지를 대체하였으며, 순화가 비교적 늦었던 소와 말도 이때에는 사람들 생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이 지역에 유목 경제가 주요한 생산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집터는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그들이 제작한 토기도 크기가 아주 작아졌다. 신점문화 사람들이 그 이전 사람보다도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 구조도 간단하고 땅 속에 남아있는 것도 적었으며, 토기의 크기도 작고 수량도 적었다. 석제 농기구들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지만, 이는 한편으로 곡식 작물을 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 소, 양 등 초식동물을 사육하며 자연자원의 이용을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앞에서 서술한 모가평 유지에서 발견된 농기구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모가평 유지를 서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농경 문화 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농서 지역은 지리적 격절성으로 말미암아 관중 지역과는 다른

26) 왕명가(2008), 이경룡 역,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 172-174.

독립적인 문화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후가 춥고 건조화되면서 축목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져 말과 양의 축목(畜牧)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굴지장이라는 독특한 매장 습속을 갖고 있었다. 황토고원의 산지 지형인 까닭에 그들의 생산 규모는 크지 않았고 불안정한 분열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북방계 유목민이나 남쪽의 파촉문화로부터의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현상도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농서지역의 고고학 문화는 중원문화와 구별되며 또한 말을 기르는 데 특화되어 있었던 진의 조상 및 융적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이것이 곧 이곳에 동방으로부터 중원문화 혹은 농경문화가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진 ‘동래설’의 고고학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3. 『사기』 「진본기」 기록의 서사 방식 검토

3.1. 중원과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사기』 진본기 중 진인의 기원과 관련된 초기 기록, 즉 진이 주로부터 분봉을 받기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주목하려고 한다. 특히 서사의 전체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사마천이 이 부분을 어떤 의도로 기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진의 조상은 제전옥(帝顓頊)의 후예인 여수(女脩)이다. 여수가 옷을 짓고 있을 때 검은 새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아들 대업(大業)을 낳았다. 대업은 소전(少典)의 자식인 여화(女華)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비(大費)를 낳았다. 우(禹)와 함께 치수에 성공하자 제(帝)가 현규(玄圭)를 수여하였다. 우가 이를 받아 말하기를 “제가 혼자

서 이룬 것이 아니라 대비가 잘 도와주었습니다.” 제순(帝舜)이 말하기를, “아하! 비 자네가 우를 도와 공을 이루었으니 자네에게 조유(阜游)를 사여하노라. 자네의 후손이 장차 크게 번창하리라.” 이에 요성(姚姓)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다. 대비가 이를 받고 순을 도와 새와 짐승을 조련하니, 대부분 잘 길들여졌다. 이가 백예(柏翳)이다. 순이 영씨(嬴氏)성을 하사하였다.²⁷⁾

사마천은 각국이 스스로 믿고 있는 전승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기록해 두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진본기 역시 진인의 전승을 담은 사서인 『진기(秦紀)』를 바탕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본기는 다른 시조 설화와는 크게 다르다. 진의 시조를 곧바로 황제(黃帝)나 그 후예와 연관시키지 않았다.²⁸⁾ 진의 시조를 제전욱의 후예가 아니라, 그의 후예인 여수라는 여인이라고 하였다. 후대의 주석가들도 주목했듯이 여인을 시조로 삼았다는 점이 특별하다.²⁹⁾ 그리고는 그 여수가 검은 새의 알을 삼키고 대업을 낳고, 다시 대업은 소전의 자식인 여화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비를 낳았다. 여기서도 또 한 번 흥미로운 변형이 일어난다. 시조인 여수가 대업을 낳았지만, 그가 다시 황제(黃帝) 계보에 속하는 소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점이 특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조와 그 며느리 모두 황제 계보에 속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진의 경우

27) 『史記』卷5『秦本紀』“秦之先，帝顓頊之苗裔孫曰女脩。女脩織，玄鳥隕卵，女脩吞之，生子大業。大業取少典之子，曰女華。女華生大費，與禹平水土。已成，帝錫玄圭。禹受曰：「非子能成，亦大費為輔。」帝舜曰：「咨爾費，贊禹功，其賜爾阜游。爾後嗣將大出。」乃妻之姚姓之玉女。大費拜受，佐舜調馴鳥獸。鳥獸多馴服，是為柏翳。舜賜姓嬴氏。”， p. 173.

28) 유목 생활을 하며 전혀 다른 풍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漢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匈奴마저도 그 시조를 夏后氏의 후예로 직접 연결시켰던 것과 사뭇 다른 기술 방식이다. 김병준(2016), 『『사기』 흉노열전의 ‘흉노 前史’ 기록 검토』, 『중앙아시아연구』 21-1, pp. 7-10.

29) 그래서 索隱注는 『사기』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좌전』에서 秦이 少皞의 후손이라고 한 기록을 빌어 大業을 皐陶라고 본다.

에는 황제 계보와 부계가 아닌 모계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중원 각국의 시조 설화와는 다른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자면, 그렇게 다른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중원 각국의 계보와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비부터는 계보와 함께 별도의 기록이 덧붙여진다.³⁰⁾ 대비는 우와 함께 치수를 잘 해서 순으로부터 요성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순을 도와 새와 짐승을 길들여 영씨(嬴氏)라는 성을 사여받았다고 한다. 순과 우를 도왔던 공적 그리고 순으로부터 영성을 받았다는 정치적 관계가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다. 순 그리고 우를 포함하는 중원과의 관계가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②대비는 아들 두 명을 낳았다. 첫째는 대렴(大廉)인데 이가 바로 조속씨(鳥俗氏)이며, 두 번째는 약목(若木)인데 이가 바로 비씨(費氏)이다. 그 현손이 비창(費昌)인데, 자손들이 중국에 있기도 하고, 이적에 있기도 하였다. 비창은 하나라 걸왕 때에 하늘 떠나 상으로 귀순하여 탕왕을 위해 수레를 몰았고, 명조(鳴條)에서 걸왕을 쳐부수었다. 대렴의 현손은 맹희(孟戲)와 중연(中衍)인데, 몸은 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 말을 하였다. 제태무(帝太戊)가 이를 듣고 수레를 몰 수 있을지 점을 쳐보니 점괘가 길하여 마침내 수레를 몰게 하고 아내를 얻어주었다. 태무(太戊) 이후 중연의 후손은 대대로 공을 세우고 은나라를 도왔다. 그리하여 영성(嬴姓)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제후가 되었다.³¹⁾

30) 藤田勝久(1997), 『『史記』秦本紀の史的考察』, 同氏著, 『史記戰國史料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235-246. 秦本紀의 戰國以前 부분은 古傳説, 紀年資料, 記事資料로 구분되며, 그중 기사자료는 약간의 설화자료와 『泰誓』에 관한 자료가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설화가 삽입된 것은 홍망의 원인을 시사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는 진본기의 주된 논지가 단순히 秦의 홍망을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원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대비의 자손은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조속씨 대령이고, 또 하나는 비씨 약목이다. 모두 영성(嬴姓)이지만 이미 씨(氏)가 둘로 나뉘어졌다. 비씨 약목의 후예인 비창은 하나라 말기에 하를 떠나 상의 편이 되었고, 또 다른 지파인 조속씨 대령도 상의 태무를 위해 수레를 몰았고 이에 혼인관계를 맺은 이래 상을 도와 제후가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두 지파 모두 상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계보 외에 추가된 부분은 역시 중원 왕조와의 관계에 집중되고 있다.

③그 현손이 중홍(中鴻)이다. 서융(西戎)에 거주하며 서수(西垂)를 지키고 있었다. 비렴(蜚廉)을 낳았고, 비렴은 악래(惡來)를 낳았다. 악래는 힘이 셋고, 비렴은 잘 달렸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자신들의 제주와 힘으로 은의 주왕을 섬겼다. 주 무왕은 은의 주왕을 정벌하였고 아울러 악래를 살해하였다. 이 때 비렴은 주왕을 위해 북방으로 사신을 갔다. 돌아왔으나 보고할 데가 없자, 광태산(霍太山)에 제단을 만들고 보고하였더니, 석관(石棺)을 얻었다. 그 석관의 명문에 “제(帝)께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은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너에게 석관을 내릴 터이니 이것으로 씨족을 번영시키도록 하라.” 사망한 뒤 광태산에 묻혔다. 비렴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계승(季勝)이었다. 계승은 맹증(孟增)을 낳았다. 맹증은 주 성왕(成王)에게 충애를 받았는데, 이가 곧 택고랑(宅皋狼)이다. 고랑은 형부(衡父)를 낳았고, 형부는 조부(造父)를 낳았다. 조부는 수레를 잘 몰아 주 목왕(繆王)에게 충애를 받았다. 목왕이 기(驥)·온러(溫驪)·화묘(驪駒)·녹이(駮耳)의 명마 네 필을 얻어 서쪽으로 순수(巡狩)를 하러 떠났는데, 즐거워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 서언왕(徐偃王)이 난을 일으키자 조부가 목왕을 위해 수레를 몰아 하루

31) 『史記』卷5「秦本紀」, “大費生子二人：一曰大廉，實鳥俗氏；二曰若木，實費氏。其玄孫曰費昌，子孫或在中國，或在夷狄。費昌當夏桀之時，去夏歸商，為湯御，以敗桀於鳴條。大廉玄孫曰孟戲·中衍，鳥身人言。帝太戊聞而卜之使御，吉，遂致使御而妻之。自太戊以下，中衍之後，遂世有功，以佐殷國，故嬴姓多顯，遂為諸侯。” p. 174.

에 천리를 달려 주나라로 돌아왔다. 목왕은 조부에게 조성(趙城)을 분봉하였고, 조부의 종족은 이로서 조씨(趙氏)가 되었다. 비렴이 계승을 낳은 이래 5대째 조부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조 땅에 거주하였다. 조쇠(趙衰)가 그 후예이다. 악래혁(惡來革)은 비렴의 아들인데 일찍 죽었다. 아들이 있었는데 여방(女防)이다. 여방은 방고(旁舉)를 낳았고, 방고는 태기(太几)를 낳았고, 태기는 대락(大駱)을 낳았고, 대락은 비자(非子)를 낳았다. 조부의 총애로 말미암아 조성의 은혜를 입었으며, 조씨(趙氏)라고 칭했다.³²⁾

이 부분은 진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논지의 흐름을 보도록 하자. 앞서 기록된 두 지파 중에 조속씨 대령을 잇는 계보가 기록되었다. 그 후손인 비렴과 악래의 두 부자는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재주와 힘을 다해 상의 주왕을 섬겼다. 주는 상을 토벌하면서 악래를 죽였고, 비렴은 곽태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비렴이 낳은 자손이 주 성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또 그 후손인 조부도 주 목왕에게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도와 서언왕의 반란을 제압함으로써 주로부터 조성을 분봉받아 조씨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한편 비렴의 또 다른 후손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일단 이들도 조부의 덕택에 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 단락은 비렴과 그 후손이 상말 주초 시기에 다시 두 개의 지파로 분화되어갔다는 계보를 근간에 두고 있지만, 그들

32) 『史記』卷5「秦本紀」“其玄孫曰中湏，在西戎，保西垂。生蜚廉。蜚廉生惡來。惡來有力，蜚廉善走，父子俱以材力事殷紂。周武王之伐紂，并殺惡來。是時蜚廉為紂石北方，還，無所報，為壇霍太山而報，得石棺，銘曰「帝令處父不與殷亂，賜爾石棺以華氏」。死，遂葬於霍太山。蜚廉復有子曰季勝。季勝生孟增。孟增幸於周成王，是為宅舉狼。舉狼生衡父，衡父生造父。造父以善御幸於周繆王，得驥·溫驪·驪駒·騄耳之駒，西巡狩，樂而忘歸。徐偃王作亂。造父為繆王御，長驅歸周，一日千里以救亂。繆王以趙城封造父，造父族由此為趙氏。自蜚廉生季勝已下五世至造父，別居趙。趙衰其後也。惡來革者，蜚廉子也，蚤死。有子曰女防。女防生旁舉，旁舉生太几，太几生大駱，大駱生非子。以造父之寵，皆蒙趙城，姓趙氏。”， pp. 174-175.

에 대한 설명은 모두 진의 조상이 어떻게 중원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모여 있다. 즉 상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던 진의 조상이 주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것, 그 후 비림의 후손 중 조부의 지파는 주를 섬김으로써 분봉을 받기에 이르렀고, 또 다른 대락의 지파도 일단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진과 중원왕조의 관계는 친상(親商)에서 친주(親周)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④비자(非子)는 견구(犬丘)에 거주하며 말과 가축을 좋아하고 잘 기르기도 했다. 견구 사람들이 이를 주 효왕에게 말하자, 효왕은 그를 불러 견하와 위하 사이에서 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말이 크게 번식하자 효왕이 그를 대락의 정식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신후의 딸이 대락의 아내가 되어 낳은 아들 성(成)이 후계자이었기에, 신후가 효왕에게 말하기를, “옛날 저희 조상인 여산(鄗山)의 딸이 용서현(戎胥軒)의 아내가 되어 중홍(中鴻)을 낳았습니다. 친척인 까담에 주나라 편이 되어 서수(西垂)를 지켰습니다. 서수는 이 때문에 화목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대락에게 아내를 주어 후계자인 아들 성을 낳았습니다. 신(申)과 대락이 거듭 혼인을 하게 되어 서용이 모두 복속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효왕이 말하기를, “옛날 백예가 순임금을 위해 가축을 관리하여 가축이 크게 번식하였기 때문에 땅을 갖게 되었고 영(嬴)이라는 성도 하사했다. 이제 그 후손들도 대대로 짐을 위해 말을 번식시켰으니 짐이 땅을 나누어 부용(附庸)으로 삼노라.”라고 하고 진(秦)에 읍을 만들어 거주하며 영씨의 제사를 잇게 하도록 하고 진영(秦嬴)이라고 불렀다. 또한 신후의 딸의 아들을 폐하지 않고 대락의 후계자로 삼아 서용과 화목하였다.³³⁾

33) 『史記』卷5「秦本紀」“非子居犬丘，好馬及畜，善養息之。犬丘人言之周孝王，孝王召使主馬于汧渭之間，馬大蕃息。孝王欲以為大駱適嗣。申侯之女為大駱妻，生子成為適。申侯乃言孝王曰：「昔我先鄗山之女，為戎胥軒妻，生中鴻，以親故歸周，保西垂，

여기서는 앞서 비림의 자손 중 악래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되었다. 위치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지만, 먼저 큰 논지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그 내용은 이들이 조부의 지파와는 달리 조성(趙城)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건구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고, 주 효왕 시기에 이르러 효왕이 이들을 불러 잘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견하와 위하 사이로 불러서 말의 사육을 담당하게 했으며, 결국 효왕은 이들이 주를 위해 말을 크게 번식시켰던 공적을 치하하여 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의 부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편 신후의 말을 통해, 대락의 후손이 둘로 나뉘어 그중 신후의 외손에 해당하는 성이 건구에서 후계자로 거주하고, 비자는 진에 읍을 만들어 거주하게 했다. 신과 서융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핵심은 성의 지파도 주의 번병이 되어 주와 서융이 화목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이상 번잡할 정도로 원문을 인용하면서 『진본기』의 내용을 검토했는데, 그 까닭은 이 기록을 관통하는 사마천의 서사 의도를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사마천은 진의 시조를 포함한 전승을 참조하며 그 계보를 서술하되, 그밖에 추가되는 내용은 모두 중원과의 관계에 집중되고 있다. 각 지파별 혹은 각 시기별로 여러 가지 전승과 자료가 있었겠지만, 사마천은 오로지 진의 조상이 중원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서술하였다. 요컨대 사마천이 『진본기』 진 분봉 이전 기록을 통해 기술하고자 하려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진의 조상이 순과 우를 도와 영성을 받았고, 그 뒤 하대 말기에 상의 편이 되었다가 주초 이후 다시 주와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 결과 주 효왕 때에 분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西垂以其故和睦。今我復與大駱妻，生適子成。申駱重婚，西戎皆服，所以為王。王其圖之。」於是孝王曰：「昔伯翳為舜主畜，畜多息，故有土，賜姓嬴。今其後世亦為朕息馬，朕其分土為附庸。」邑之秦，使復續嬴氏祀，號曰秦嬴。亦不廢申侯之女子為駱適者，以和西戎。”

3.2. 계보와 거주지

다음은 사마천의 계보의 서술과 관련한 서사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사기』 혹은 『제계(帝系)』와 같은 문헌에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 계씩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후손을 적는 방식으로 계보를 기록한다. 그런데 하나의 시조에서 여러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정황을 기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술이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사기』의 계보 서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서사 원칙을 찾을 수 있다. 사마천은 비록 시조에서부터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조부터 분화한 여러 지파 씨족을 모두 포괄하여 그 성씨의 확산을 기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마지막으로 적혀진 그 씨족을 기준으로 그 씨족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시조까지에 이르는 직계 계보를 기술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만 시조로 이어지는 중간 중간에 다른 지파를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은 무언가 그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가 직계 계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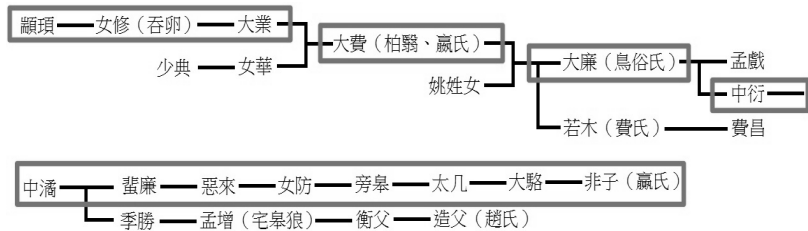
『진본기』에서도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①에서는 여수-대업-대비까지 단일 계보가 이어지는데, 서술의 핵심이 대비가 영성을 받았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므로 여수 이후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②에서는 대비 이후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졌음을 기술하였다. 하나가 대림 지파이고, 또 하나가 약목 지파이다. 이 중 마지막 비자까지 이어지는 직계 계보는 대림 지파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서술 방식이 보이는데, ‘일왈대림(一日大廉)’, ‘이왈약목(二日若木)’이라고 해서 두 형제 중 대림이 손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정작 약목과 그 후손을 먼저 기술하고 난 뒤에 대림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직계 계보에 속하지 않는 약목 지파의 서술을 먼저하고, 직계 계보에 속하는 대림 지파를 나중에 서술한다는 의도가 확인된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흥이 약목이 아니라 대림의 계보와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목의 방계 지파를 별도로 기술한 까닭은 1절에서 설명한 대로 진의 조상과 증원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즉 약목의 현손인 비창이 하나라를 떠나 상나라에 귀부했다는 점을 부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림의 지파도 나중에 상을 도와 제후가 되었지만 그 시기가 태무 이후에 해당되므로, ①의 순·우와 태무 사이의 시기에 해당하는 하말상초의 부분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약목 지파를 기록했다고 판단된다. ③에서는 증홀-비렵 이후 다시 두 개의 지파로 나뉘고 있다. 역시 악래가 손위에 해당하고 계승은 손아래인데, ②에서와 마찬가지로 직계 계보에 속하지 않는 계승-맹증-형부-조부의 지파를 먼저 서술하였다. 그리고 직계 계보에 속하는 악래-여방-방고-태기-대락-비자의 지파를 나중에 기술하여, 그 뒤 등장하는 비자를 직계 계보와 이었다. 또 직계 계보에 속하지 않는 계승-맹증-형부-조부의 지파를 기술한 까닭은 역시 증원 왕조와의 관계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악래-여방-방고-태기-대락-비자의 지파가 서주와 본격적인 우호관계를 갖게 된 효왕 이후부터이므로, 서주 초기부터 효왕까지의 시기에 서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계승-맹증-형부-조부의 지파가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조부가 주로부터 조성에 분봉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비자가 진에 분봉을 받았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며, 또 조부의 분봉으로 말미암아 비록 악래는 주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그 후손인 여방-방고-태기-대락-비자까지 주와 적절한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었다. ④에서는 대락의 두 아들 비자와 성의 지파가 소개된다. 진에 분봉된 비자가 직계 계보에 속하며, 성의 지파는 대락의 또 다른 후계자로서 직계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신후와 두 차례 통혼하면서 주의 편으로 들어 오게 되었던 자들로서 역시 증원과의 관계를 보충하는 부분이다. 또한 뒤 이어 비자의 자손인 진중(秦仲)과 장공(莊公)이 서융을 공벌하여 이곳을 차지하고 서수대부(西垂大夫)가 되었다는 내용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마천의 의도는 계보 서술의 시발점을 진에 분봉된 비자에

두고,³⁴⁾ 그의 계보를 확인하기 위해 거꾸로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 것이다. 다만 이를 기록할 때 시조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이어 내려오도록 했을 뿐이다. 또한 분화된 모든 지파를 기록하지 않고, 직계 계보의 흐름을 따라가되 직계 계보만으로는 중원과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지파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비자가 진에 분봉을 받은 시점부터는 직계 후손을 기록할 뿐 더 이상 지파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도 계보 서술의 주요 목적은 비자의 직계 계보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면 『진본기』의 계보는 [표 1]과 같이 다시 간단하게 정리된다.

[표 1] 진본기에 기록된 진 계보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의 시조에서 출발하였고 또 하나의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족속에 속하고 동일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되기도 한다.³⁵⁾ 동

34) 『진본기』에서 秦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非子가 주 효왕으로부터 秦에 분봉을 받았던 시점 이후이며, 그 전에는 단지 인명만을 기록했다. 이것도 『진본기』 계보의 출발점이 非子 秦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5) 필자는 秦의 기원과 관련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王學利(2008), 『東西兩犬丘與秦人入隴』, 『秦漢考古文選』, 西安: 三秦出版社, pp. 8-10에서 趙城에 분봉된 자들의 후손이 갑자기 멀리 西縣에 들어갔을 리가 없고, 더욱이 이들이 그곳에 맞는 목축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모두 이런 전제에서 비롯된다.

일한 계보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들의 거주지, 생산경제 형태, 주변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뒤죽박죽 나오기 때문이다. 『진본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공통적으로 영(嬴)이라는 성을 가진 진의 조상이 때에 따라 중원에 있기도 하고 이적과 함께 거주하기도 한다든가, 또 지파에 따라 중원 왕조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하며, 유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가도 전형적 농경민인 듯하기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본기』 계보의 목적은 비자의 계보를 기록하는 데에 있을 뿐이며, 비록 하나의 영성에 속한다고 해서 그 분파가 모두 동일한 습속, 거주지, 정치적 경제적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마천은 동일한 영성에 속하지만 그 지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진본기』 마지막에 ‘태사공왈’에는 『사기』의 다른 편과는 사뭇 상이한 내용이 적혀있다.

진나라 조상의 성은 영(嬴)이었는데, 그 후손이 분봉을 받아 그 분봉된 나라(國)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서(徐)씨·담(郟)씨·거(莒)씨·종여(終黎)씨·운엄(運奄)씨·토구(菟裘)씨·장량(將梁)씨·황(黃)씨·강(江)씨·수어(脩魚)씨·백명(白冥)씨·비렴(蜚廉)씨·진(秦)씨가 있다. 다만 진은 그 조상인 조부(造父)가 조성(趙城)에 분봉되었기 때문에 조(趙)씨가 되었다.³⁶⁾

사마천은 진의 조상이 영성이지만 그 뒤 여러 지파가 분봉되어 각각 그 나라를 성씨로 삼게 되면서 영성의 후예는 여러 씨로 나뉘어졌다는 사실과 진씨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두었다. 즉 이들 씨 중 서씨·담씨·거씨·종여씨·운엄씨는 그 국명(國名)으로 보아 분명 산둥 및 회하 지역에 위치한다. 그런가 하면 토구씨는 북방에, 강씨

36) 『史記』卷5「秦本紀」“秦之先為嬴姓。其後分封，以國為姓。有徐氏·郟氏·莒氏·終黎氏·運奄氏·菟裘氏·將梁氏·黃氏·江氏·脩魚氏·白冥氏·蜚廉氏·秦氏。然秦以其先造父封趙城。為趙氏。”，p. 221.

· 수어씨는 남방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즉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거주환경에 따라 경제 형태나 정치적 관계도 변동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욱 분명한 증거는 영성의 계보를 쓰면서 도중에 “그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던 기록이다. (或在中國, 或在夷狄) ①에서 진의 조상으로 기록된 여수-대업-대비는 우를 도와 치수를 했고 순을 도와 조수를 길들였다고 했으므로 비록 그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원 지역에 거주했다고 보인다. 또 ②에서 그 후손인 약목의 현손 비창이나 대림의 후손은 모두 상왕을 섬기며 함께 직접 상왕을 위해 마차를 몰기도 하면서 상의 제후가 되었다고 했으므로 역시 중원에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의 비렴과 악래 역시 상의 주왕을 힘껏 섬겼다고 되어 있는 이상, 이들이 활동한 곳도 중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본기』에 진의 조상이 줄곧 중원에서 활동한 사실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진의 기원을 동쪽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진의 조상이 중원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거주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마천 스스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적에 거주하고 있다”를 부기했던 것이다. 즉 ② 대비의 현손인 비창은 중원에 있었지만, 같은 지파에 속한 자손들도 반드시 중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③의 중흥의 거주지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중흥의 선조는 대림인데, 그 대림의 후손은 상을 도와 중원에 거주했고, 또 중흥의 자손인 비렴과 악래 역시 중원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중흥 부분에만 ‘서융에 거주하며 서수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다른 고사가 적힌 것도 아니고 단지 그곳이 중원이 아니라는 점을 적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그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적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된다.³⁷⁾

이러한 서사방식은 한 번 더 등장한다. ③에서 비렴의 아들인 계승과 그 후손이 주왕의 총애를 받아 조성에 분봉되었다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서술된 뒤, ④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인 비자와 그 후손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글귀가 “견구에 거주하며 말과 가축을 좋아하여 잘 번식시켰다(居犬丘, 好馬及畜, 善養息之)”이다. 역시 “그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적에 거주하고 있다”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비자가 견구에 거주했다는 기록은 그 이상을 설명한다. 즉 비자 이전의 조상들이 때로 중국에 거주하기도 했고 때로 이적에 거주하기도 했지만, 주로부터 분봉을 받은 비자가 그 직전에 거주했던 곳은 중국이 아니라 서융의 땅, 견구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다. 비자가 주 효왕으로부터 분봉을 받을 때에 비자의 부친인 대략도 견구에 거주했다. 말과 가축을 잘 기른다는 소문을 듣고 불려서, 목초가 널리 펼쳐진 ‘견화와 위하 사이’에서 말을 기르게 한 결과 크게 번식했다는 이야기도 이들의 주요 생산 경제형태가 축목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바, 견구는 이에 적합한 곳이었다.

요컨대 『진본기』에는 계보와 함께 진의 조상이 중원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주로 기술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기원이 ‘중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영성에 속하는 많은 지파들은 얼마든지 중국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적에 거주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진본기』의 가장 핵심적 부분 즉 진이 주로부터 분봉받기 전 대략과 비자는 견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융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적어놓았다.

37) 蜚廉과 惡來가 중원에서 활약하다가 그 후손인 非子가 갑자기 犬丘에 거주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연구자들은 犬丘를 隴山の 동쪽편에 위치시켜 非子の 父인 大駱의 犬丘와 다른 지명이라고 주장한다. 王國維, 『秦都邑考』, 『觀堂集林』 卷12 참조.

4. 「계년」 기록의 검토

본 장에서는 진의 기원과 관련해 결정적인 자료라고 일컬어지는 「계년」 제3장의 기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계년」 제3장의 내용을 기존의 독법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 무왕이 은을 멸망시킨 뒤 삼감(三監)을 설치했는데, 무왕이 죽은 뒤 상읍(商邑)이 반란을 일으키자 삼감을 죽이고 록자경(祿子耿)을 세웠다. 성왕이 이어서 상읍을 정벌하여 록자경을 죽이니, 비렴(飛廉)이 동쪽으로 상엄씨(商奄氏)로 도망갔다. 성왕은 상엄을 정벌하여 비렴을 죽이고 상엄지민(商奄之民)을 주어(朱圉)로 서천(西遷)시켜 노차지용(奴虔之戎)을 제어하도록 했다. 이것이 진의 선인(先人)인데 대대로 주의 근간이 되었다. 주실(周室)이 쇠락하여 평왕(平王)이 동천(東遷)하여 성주(成周)에 머물자, 진중(秦仲)이 동쪽으로 주지(周地)에 거주하며 주의 분묘를 지켰다. 이로써 진이 커지기 시작했다.

周武王既克殷，乃設三監于殷。武王陟，商邑興反，殺三監而立祿子耿。成王繼伐商邑，殺寗子耿，飛廉東逃于商奄氏，成王伐商奄，殺飛廉，西遷商奄之民于朱圉，以御奴虔之戎，是秦先人，世作周屈(幹?)。周室既卑，平王東遷，止于成周，秦仲焉東居周地，以守周之墳墓，秦以始大。

여기에는 삼감이라든가 록자경, 비렴과 진중 등 기존 사서에 등장하는 인명이 여럿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끈 글귀는 ‘상엄지민을 서천시켰는데 이들이 진의 선인이다’라는 부분이다. 기존의 사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면서 동시에 진의 기원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동래설’ ‘서래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출처자료라는 사실이 기존 문헌보다 높은 신뢰를 갖게 된 이유였다. 또한 전체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년」 전체를 검

토하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좌전』을 비롯한 전래문헌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여러 곳에서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진본기」에 비렴과 그 아들 악래가 모두 상의 주왕을 섬겼다고 되어 있다는 점과 「계년」에서 주 성왕이 비렴을 끝까지 추적하여 살해했다고 했던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맹자』에도 주왕이 비렴을 바다 끝까지 쫓아가 살해했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계년」의 기록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기존 사서에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계년」 제3장은 「진본기」의 내용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진본기」의 착오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3장 자체의 내용 검토이다.

4.1. 사기와와의 비교

우선 「계년」의 기록이 「진본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비렴이라는 인명이 나오고 또 그가 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점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두 사료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첫째, 「계년」에서는 비렴이 삼감의 난에 참여했다가 상엄씨로 도망갔으나 주왕은 그곳까지 쫓아가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한편 「진본기」③에서는 주왕이 비렴과 악래 중 악래만을 죽였다고 되어 있다. 그 당시 비렴은 상의 주왕을 위해 북방으로 나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주왕이 죽어버려서 보고할 수가 없자 곽태산에 제단을 쌓고 보고했더니 석관을 얻게 되었고, 그 석관의 명문에 “은과 함께 난을 일으키지 말고, 씨족을 번영케 하도록 하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비렴은 그곳에서 살다가 곽태산에서 죽었다. 그 결과 그의 자손은 석관의 명문대로 주왕의 충애를 받아 번성하게 되어 결국 조성(趙城)에 분봉되었다고 한다. 즉 「진본기」에 따르면 비렴은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상엄씨로 도망가지도 않았으며, 주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다. 비렴은 곽태산

이라는 산 속에서 죽었으며 그 자손은 주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둘째, 『계년』에 의하면 비림이 상엄씨에서 살해되고 난 뒤, 상엄지민을 진의 지역에 해당하는 주어로 천사(遷徙)하여 노차지용을 제어하게 했다고 한다. 한편 『진본기』에는 비림과 그 자손이 중원에 그대로 머물러 조성에 분봉되었던 반면, 악래의 자손은 다시 농서의 건구로 돌아가 말과 가축을 잘 길렀다고 되어 있다.³⁸⁾ 진의 지역으로 돌아온 것은 상엄지민이 아니라 진의 계보 속 인물인 악래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노차지용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신후가 용서현 및 대락과 통혼을 함으로써 서용이 주에 복속하게 되었고 주 효왕은 신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후의 외손자에 해당되는 성(成)을 대락의 또 다른 후계자로 삼아 서용과 화목을 꾀했다고 되어 있다. 『계년』이 상엄지민이 서용을 제어했다고 쓴 반면, 『진본기』에서는 신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진본기』와 『계년』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쪽에서는 비림이 반란에 참여했다가 주왕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림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왕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 두 사료는 결코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사료를 앞에 두고 그중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빼다든지 혹은 어휘나 표현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생겨난 차이가 아니다. 이러한 차

38) 『진본기』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惡來가 일찍 죽고, 그 아들인 女防이 旁耬를 낳고 방고는 太儿를 낳고 태기는 大駱을 낳고 대락은 非子를 낳았다. 이렇게 그 계보를 기술하고는 이어서 이들이 또 다른 지파인 造父 덕분에 趙城의 은혜를 받아(蒙趙城) 趙氏의 姓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 구절 때문에 마치 악래의 자손도 趙城에 계속 머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集解注는 非子가 거주했다는 犬丘도 농서가 아니라 趙城에 가까운 扶風 槐里縣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계승부터 조부까지 趙에 “別居”했다는 것은 악래부터 비자에 이르는 지파는 趙가 아닌 별개의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非子가 犬丘에 거주하며 “말과 가축”을 잘 사육했다고 한 것이나 또 “西戎”이 大駱의 犬丘를 멸망시켰다는 기록을 보면, 이 犬丘가 隴西 지역에 있다고 보는 편이 무난하다. 따라서 필자는 감숙성 禮縣이라고 보는 다수의 學說을 따른다.

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료를 선택해야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³⁹⁾ 따라서 「진본기」와 「계년」의 내용 중 일부를 적절하게 절충하여 조합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만 하게 할 뿐이다.⁴⁰⁾

이렇게 다른 자료를 선택한 까닭은 물론 사마천과 「계년」의 저자가 자기 사용의 자료밖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기』와 「계년」은 모두 『좌전』, 『죽서기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유사한 기록을 채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적다. 그보다는 여러 종류의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상호대조한 이후, 자신의 서사 의도에 맞는 사료를 취사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3장에서 서술했듯이, 「진본기」 중 분봉 이전의 시기를 기술할 때 사마천의 서사의도는 진의 계보와 함께 진의 조상이 중원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소상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었다. 「계년」도 분명한 서사의도를 갖고 있다. 「계년」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의 입장에서 쓰인 기사본말체의 기록이다.⁴¹⁾ 초의 기년이 사용되었다는 점, 초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39) 呂廟君(2015), 「淸華簡<繫年>版本源流問題」, 『新史料與新史學－武漢大學第二屆瑒珈史學博士論壇會議論文集』는 「계년」의 제9장과 제10장의 내용을 『좌전』과 비교 검토하여 두 기록의 내용이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40) 陳昭容(2013), 「從文獻與出土文物看早期秦國融入華夏的歷程」, 李宗焜 編, 『第四屆國際漢學會會議論文集-出土材料與新視野』, 臺北: 中央研究院; 張天恩(2014), 「淸華簡<繫年(三)>與秦初史事略析」, 『考古與文物』 2014-2. 최근 발표된 이유표(2016), 「西周 金文에 보이는 ‘秦夷’와 『繫年』의 ‘商奄之民」, 『동양사학연구』 135도 기본적으로 「계년」의 기록과 「진본기」 및 갑골문, 금문에 출현하는 秦 및 商奄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이를 정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속한다. 일단 시기와 지역을 초월하여 단일한 지명 혹은 족명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작자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된 상이한 계통의 사료를 섞어서 이해하기보다, 일단 각각의 기록에 담겨있는 내적 서사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 그 전체 자료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1) 廖名春(2012), 「淸華簡『繫年』管窺」, 『深川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2-5; 許兆昌·齊旦旦(2012), 「試論淸華簡<繫年>的編纂特點」, 『古代文明』 2012-4.

이유와 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진(秦)과 진(晉)의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⁴²⁾ 초의 귀족들에게 현재의 초와 주변 국가의 상황이 대략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단하고 명쾌하게 교육시킨다는 목적 하에 역사적 사실을 편집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본고에서 주목하는 『계년』의 제3장도 그 서사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마지막 구절이 압축하고 있듯이 춘추시대에 들어와 갑자기 진이 강대해지게 된 까닭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서주 초기까지만 해도 진의 수장이 살해되는 등 그 세력이 미미했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된 뒤 그 이후 서주와의 관계가 호전된 사례를 찾아서 대비시켜 서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진본기』와 『계년』은 각각의 서사 목적을 갖고 그에 맞는 사료를 취사선택했던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 그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판단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그동안 『계년』에 대한 연구를 일람하면, 『계년』의 기록 중에서 기존 문헌자료와 다른 부분을 찾아내 그 사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⁴⁴⁾ 물론 그것이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라면, 그 가치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 『계년』 제3장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삼감’의 경우, 『사기』와 기타 문헌에서는 ‘삼감’을 주공(周公)의 형제인 관숙선(管叔鮮)과 채숙도(蔡叔度), 그리고 무경(武庚)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년』에서는 삼감 안에 무경(목자경, 寡子耿)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읍(商邑)이 난을 일으켜 삼감을 죽이고 목자경을 세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계년』에 근거하여 삼감을 관숙, 채숙 그리고 곽숙(霍叔)이라

42) Yuri Pines, “Zhou History and Historiography”, *T'oung Pao* 100-4-5, pp. 290-298; 陳民鎮(2012), 「《繫年》“故志”說 - 清華簡《繫年》性質及撰作背景芻議」, 『邯鄲學院學報』 2012-2, pp. 49-57.

43) 淺野裕一(2012), 「史書としての清華簡<繫年>の性格」, 淺野裕一・小澤賢二, 『出土文獻から見た古史と儒家經典』, 東京: 波古書院, pp. 59-104.

44) 심재훈(2014),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清華簡 『繫年』의 周 왕실 東遷」, 『역사학보』 221, pp. 261-292.

고 하기도 한다.⁴⁵⁾ 또 기존의 문헌에서는 삼감이 무경(목자경)과 연맹했다고 되어 있지만, 『계년』에서는 삼감을 죽이고 무경(목자경)을 세웠다고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그러나 그만큼이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주의 동천을 도와준 진공(秦公)이 누군가인가를 보면,⁴⁷⁾ 『사기』를 비롯해 진박(秦縛)과 진궤(秦籥)의 명문 그리고 대다수의 문헌이 평왕(平王)의 동천을 도와 주의 옛 땅을 차지하게 된 자를 진의 양공(襄公)이라고 한다. 그런데 『계년』에서는 양공 대신 양공의 조부(祖父)에 해당되는 진중(秦仲)이 그 주인공이라고 적고 있다. 진중은 서융에게 살해된 자이고, 그 아들 장공(莊公)에 이르러 서융에게 빼앗겼던 대락의 건구를 회복하였으며, 양공 7년에 주 유왕(幽王)이 살해되자 양공이 평왕을 호위했다.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년』의 기록을 신뢰하기 힘들다. 결국 지금까지로서는 어느 사료가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어떤 서사 의도를 갖고 어떤 자료를 선택하여 어떻게 서술하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계년』 제3장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상엄지민’과 ‘진의 조상(秦之先)’ 부분의 의미를 검토해 보자.

4.2. 비림과 상엄지민

『계년』에서는 비림이 상읍에서 목자경과 함께 주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 성왕이 상읍을 공격해 목자경을 죽이자 비림이 상엄씨로 도망갔고, 다시 성왕이 상엄을 공격해서 비림을 죽였다고 한다. 기존의 많은 연

45) 邢文(2013), 「淸華簡《金縢》與三監」,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3-1, pp. 68-71.

46) 路懿茵(2013), 「從淸華簡《繫年》看周初的“三監”」,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6, pp. 924-28.

47) Yuri Pines (2014), pp. 302-303.

구자들은 상엄지민과 비림을 연결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비림이 상읍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엄씨에게로 도망갔다면, 그가 본래 거주했던 곳은 상엄씨가 아니다. 이 엄(奄)은 상이 은(殷)으로 천도하기 전에 일찍이 도읍한 곳이며, 주공이 삼감의 난을 진압한 뒤 백금(伯禽)을 봉하여 노국(魯國)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은 비림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본거지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계년』에서 말하는 상엄지민은 비림의 종족이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도 비림의 진을 상엄씨와 동일시 할 수 없었기에, 비림의 진을 하남성 범현(范縣)으로 비정하고 상엄씨와 같이 주의 동정(東征) 때 함께 서쪽으로 천사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상엄지민이라고 했다고 보든가⁴⁸⁾, 혹은 색은주(索隱注)를 인용하며 동방의 소호(少皞)가 진의 영성(嬴姓)이기 때문에 비림의 진인과 상엄지민이 같은 영성 출신의 동족이라고 부회했다.⁴⁹⁾ 하지만 그럴 거라면 상엄지민을 천사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진지민’(秦之民)을 천사했다고 하거나 ‘영성지민’(嬴姓之民)을 천사했다고 하면 되었을 것이다. 『계년』을 평심하게 읽으면, 비림이 상의 유민과 함께 삼감의 난에 참여했다가 그 상의 옛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비로소 비림과 상엄의 관계가 형성될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계년』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 내용이 『맹자』 등문공 하편에 “주공이 무왕을 도와 주(紂)를 주벌(誅伐)하고 엄(奄)을 정벌한 지 3년만에 그 임금을 죽이고 비림을 바닷가까지 쫓아가 죽였다”(周公相武王誅紂, 伐奄三年討其君, 驅蜚廉於海隅而戮之)라고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기』 「진본기」와는 달리 『맹자』와 『계년』에서 모두 비림이 동방에서 살해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년』과 『맹자』의 기록을 정확히 비교해 보면, 양자는 비림을 살해했다는 것

48) 이유표(2016), pp. 134-150.

49) 李學勤(2013), 『清華簡關於秦人始源的重要發現』, 『初識清華簡』, 上海: 中西書局, pp. 142-143; 陳昭容(2013), p. 277 등.

에서만 동일할 뿐,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달리 기록하고 있다. 『맹자』는 엄에서 엄군을 살해하자 비림이 도망갔고 그래서 바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계년』은 상엄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다. 『맹자』에 의하는 한, 비림이 상엄에서 죽었기 때문에 천사된 상엄지민이 비림의 종족일 것이라는 논리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 성왕은 비림을 죽이고 난 뒤, 비림의 종족을 천사시킨 것이 아니라 비림이 도망해 간 상엄씨의 민을 서쪽으로 천사시켰다는 말이 된다. 그들을 주어로 천사시켜 용을 제어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주어가 설령 농서의 진 지역이라고 치더라도 과연 비림의 종족이 아닌 상엄지민을 진의 땅에 천사시켰다고 그들을 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설령 이들이 진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지하듯 주는 상과 그 연맹 세력을 멸망시킨 뒤 그 유민들을 다른 곳으로 천사시키거나 다른 제후에게 분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령 부풍현(扶風縣) 장백(莊白) 1호갱 출토 청동기 장반명(牆盤銘)에 의하면, 미씨(微氏)의 가족이 본래 미국(微國)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 무왕의 멸상(滅商) 이후 기주(岐周) 근처로 옮겨져 대대로 주 왕실의 사관(史官)을 맡았다. 한편 북경 유리하(琉璃河) M1193 묘장에서 출토된 동뢰(銅甗)의 명문에 의하면 주왕이 언후(邲侯)를 봉하면서 미씨(微氏)의 종족을 언후(邲侯)에게 분사(分賜)하고 있다. 미국의 유민이 미국 외에 기주와 언(邲, 즉 燕)으로 천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⁵⁰⁾ 이처럼 해당 지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주실에 속한 타 지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주가 비림으로 대표되는 반주(反周) 세력이 도망쳐 온 상엄을 정벌하고 난 뒤, 그 상엄지민을 다른 곳으로 천사시키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계년』에서 상엄지민이 주어로 천사된 시점은 아직 진이 봉건되

50) 김병준(1997), 『중국고대 지역문화와 균현지배』, 서울: 일조각, p. 179.

지 않았던 때이다. 상업지민이 천사된 것은 주 성왕 때이고, 비자가 분봉된 것은 주 효왕 때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천사되었다면 나중에 진의 영역이 아니라, 기주와 같이 서주 왕실의 관할 영역이거나 혹은 적어도 다른 제후에게 분봉하였던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자는 상업지민이 천사된 주어를 감곡현 모가평으로 비정했던 이학근의 견해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곳이 진이라고 불렀던 증거도 없거니와, 또 노차지용으로부터 서주를 제어하는 위치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업지민이 천사된 곳은 서주 왕실이 위치하는 관중 지역을 농서의 노차지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 즉 농산을 넘어가는 교통로일 것이다.

비자가 주 효왕으로부터 분봉받은 진의 위치도 농산을 넘어가는 교통로에 위치한다. 『한서』 지리지는 농저도를 넘어 위치한 장가천 혹은 청수 근처에 진정진곡(秦亭秦谷)이라고 비정하고 있다. 『진본기』에 의하면 주 효왕은 대락의 아들인 비자를 분봉해야 한다는 점과 또 다른 아들인 성을 존중해 달라는 신후의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여, 비자를 진에 분봉하면서 동시에 성을 대락의 후예로 인정했다. 대락의 두 아들을 동시에 인정했다는 말이 가능하려면, 성이 후계자가 된 견구와 비자의 분봉지인 진이 달라야 한다. 주 효왕은 견구에 거주하는 비자를 견하와 위하의 사이로 ‘불리(召)’ 그곳에 위치한 진에 분봉했다고 한 것도 견구와 진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진이라는 명칭은 분봉할 때 처음 작명한 것이 아니라, 분봉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지명이었다. 노, 제, 진(晉), 연, 오, 월이 주에 의해 제후가 봉건될 때 그 해당 지역의 명칭을 썼던 것과 같다. 비자의 분봉 이전에 진이라는 명칭이 금문에서도 확인된다. 순궤(詢籟)와 사유궤(師酉籟) 명문 중에는 ‘진이(秦夷)’ 혹은 ‘진인(秦人)’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 두 예기는 모두 공왕(共王)과 의왕(懿王) 시기로 판정되므로 비자가 진에 봉해지는 효왕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비자가 진에 분봉되기 이전에 이곳에 살고 있던 자들을 ‘진이’ 혹은 ‘진인’라고 불렀던

것이다.⁵¹⁾ 따라서 『계년』의 상업지민도 이러한 ‘진이’ 혹은 ‘진인’이라고 불리웠을 수 있다.

그런데 서주 시기 제후를 봉건할 때에는 그 봉지의 사람들을 사여하곤 한다. 『좌전』 정공(定公) 4년조에서 주 성왕이 백금(伯禽)을 노(魯)에 봉할 때에 그 지역의 상업지민을 사여한 사례나, <의후적괘>(宜侯矢簋)에서 우후(虞侯) 적(矢)을 의(宜)로 옮기면서 그에게 의왕인(宜王人)과 의서인(宜庶人)을 사여해 주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따라서 비자에게 진을 분봉할 때에도 이 지역에 있던 ‘진인’을 사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이곳 ‘진’으로 천사된 상업지민을 다시 비자에게 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4.3. 진선인(秦先人)⁵²⁾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분봉지 해당 지역의 사람을 사여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봉국의 선인(先人)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노의 백금에게 상업지민을 사여했다고 해서 상업지민을 노의 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후 적에게 의왕인과 의서인을 사여했다고 해서 그들을 의의 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노의 선인’은 노의 제후인 백금의 조상



[그림 2]
‘先人’
合字

51) 李峰(2007), 『西周的滅亡 - 中國早期國家的地理和政治危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 303.

52) 본래 글자는 [그림 2]와 같다. 淸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 『淸華大學藏戰國竹簡(貳)』(中西書局, 2011)에서는 이 글자를 ‘先人’의 합자로 석독하였다. 반면 子居, 『淸華簡《繫年》1~4章解析』(<http://www.confucius2000.com/admin/list.asp?id=5182>) 및 Yuri Pines, 2014, p. 299 등은 이를 ‘之先’의 합자로 석독했다. 본고는 청화대 석독인 ‘秦先人’이 맨 처음 공표된 것이어서 이를 인용했지만, ‘秦先人’이나 ‘秦之先’ 양자 모두 ‘조상’이라는 의미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본고의 논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秦之先’의 합자로 읽는다면 『진본기』의 ‘秦之先’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진본기』와 같이 ‘秦 公室의 조상’으로 해석해야 할 당위성이 커지므로, 본고의 결론에 더욱 부합하게 된다.

에서 찾아야 하고, ‘의의 선인’은 의의 제후인 의후 적의 조상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진본기』에서 ‘진지선(秦之先)’을 비자의 조상인 전욱(顛頊)의 후예 여수라고 했고, 『진시황본기』에서는 ‘진지선’을 백예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원칙에서였다.⁵³⁾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엄지민은 진 제후의 조상과 상관 없이, 단지 상엄씨를 정별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천사시킨 자들이라면, 『계년』에서 이들을 ‘진선인(秦先人)’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이학근을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은 상엄지민을 ‘진선인’과 등치시켰기 때문에 『계년』의 ‘진선인’을 진 제후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제후의 조상이 아닌 진을 구성하는 일반인들의 조상 정도로 이해했다. ‘진선인’ 바로 뒤에 “대대로 주를 지켜주었다”고 되어 있어 상엄지민이 서용을 제어한 것과 유사한 의미로 읽혀진다는 점도 이런 이해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후국의 사례를 보건대, 진을 봉건할 때에도 진에게는 상엄지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족이 사여되었으므로 굳이 상엄지민만이 주를 지켜준 주인공처럼 이해하는 것은 어색하다. 또 만약 진이 주를 제대로 지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응당 진 제후의 조상 혹은 귀족을 지목하는 것이 당연하다. 2장에서 서술했듯이, 예현 서산(西山) 유지의 묘장에서 진나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청동병기를 주장하였던 진의 군사귀족은 동방의 상엄지민이 아니라 차라리 북방계 유목민의 특징을 띠고 있는 자들이었다.

상엄지민이 ‘진선인’ 즉 진 제후의 조상이 아닌 한, 필자는 『계년』의 기록을 다시 끊어 읽지 않을 수 없다. 이학근 이래 모든 연구자는 “西遷

53) 『史記』卷40『楚世家』“楚之先祖出自帝顛頊高陽”; 『史記』卷43『趙世家』“趙氏之先, 與秦共祖”; 『史記』卷44『魏世家』“魏之先, 畢公高之後也”; 『史記』卷45『韓世家』“韓之先與周同姓, 姓姬氏”; 『風俗通義』『六國』“楚之先出自帝顛頊, ... 韓之先與周同姓, ... 魏之先, 畢公高之後也, ... 趙之先與秦同祖”라고 한 것을 비롯해 거의 모든 문헌에서는 모국(某國)의 先人을 그 ‘王室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商奄之民于朱圉，以御奴虺之戎，是秦先人，世作周屈(幹?)。”와 같이 표점을 달아 읽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독법대로 읽으면 상엄지민이 ‘진선인’ 즉 진의 조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양자를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엄지민과 진선인을 이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西遷商奄之民于朱圉，以御奴虺之戎。 / 是秦先人世作周屈(幹?)”로 바꿔 읽어야 한다. 상엄지민을 주에 천사시켜서 용적을 제어했다는 사실과 진의 조상이 대대로 주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떼어서 읽자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계년』 제3장 전체는 “주에 적대적이었던 비림이 삼감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여 살해되었고 그 곳의 상엄지민을 천사하여 서용을 막았다”는 사실과 “그런데 이러한 진의 조상들이 대대로 주를 도왔고, 주가 쇠망해서 동천하게 되었을 때에도 도와주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진의 조상과 주의 관계가 매우 나빴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나중에는 이런 진의 조상이 대대로 주를 도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전체 내용은 앞과 뒤가 대구를 이루며 극적인 변화 과정이 드러나게 되고, 맨 마지막 “진이 강대해졌던” 이유가 더 명확해진다. 기존의 독법에서는 진이 강대해진 이유가 마치 주가 상엄지민을 천사해서 용적을 막았던 결과인 것처럼 되어버려 진의 주체적 의지라기보다 주의 천사 정책이 두드러질 뿐이지만, 새로운 독법에서는 그 이유가 원래는 적대적이었던 진이 봉건된 이후 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진의 태도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의 선인을 기존 전래 문헌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뜻에서 벗어나 편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지역을 정벌하고 그 지역의 민을 다른 곳으로 천사했을 뿐인 사실을 마치 그들이 진의 조상인 것처럼 주장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새로운 독법에 의하면, ‘진선인’을 ‘진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상엄지민’이 아니라 ‘진 공실의 조상’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선인’의 용법을 기존 전래 문헌자료의 용법과 동일하게 읽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진의 봉건 이후 진이 주체적으로 주를 도와주어 결국 강대해졌다는 전체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상에서 필자가 이해한 『계년』 제3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 진의 조상 비림은 상과 협력관계에 있었다. 상이 멸망한 뒤 상읍이 반란을 일으켜 삼감을 죽이고 룡자경을 세우자 주 성왕은 상읍을 정벌하여 룡자경을 죽이고, 상읍씨로 도망한 비림을 쫓아 상읍씨를 정벌하여 결국 비림을 살해했다. 비림의 살해 이후 상읍씨의 세력 약화의 목적으로 상읍지만을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 서천시켜서 관중에 있는 서주의 왕기(王畿)를 농산 너머의 서용으로부터 방어하도록 했다. 이들은 진의 조상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주 초 이래 주에 적대적이었던 진이 분봉된 이후에는 진 제후의 직계 조상들이 대대로 주를 지켜주었고, 특히 주가 쇠망해 평왕이 동천할 때에 진이 주를 크게 도왔다. 이것이야말로 춘추시대에 진이 강대해진 까닭이다.

5. 맺음말

본고는 진의 기원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자료로 떠오른 『계년』 제3장의 기록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함으로써, 진의 ‘동래설’을 논박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토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간독의 기록을 신뢰하는 최근의 풍조를 비판하고,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한 『사기』 기록을 다시 읽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 그 기록의 성격 혹은 서사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두 가지 기록을 묶어서 절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고고학 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계년』 제3장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얽혀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필자 나름의 재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진 의 ‘동래설’은 첫째, 이미 서주시기에 농서 지역에 중원문화의 영향

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고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사기』 『진본기』에서 진의 조상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동일한 영성에 속하는 많은 씨족이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셋째, 『계년』에 나오는 상엄지민을 ‘진의 선인’으로 읽어 이들이 진의 기원이라고 이해해 왔다.

이에 대해 우선 고고학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진의 옛 땅인 농서 지역의 지리 환경을 보면, 농산에 의해 중원과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었으며,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농서지역의 물질문화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을 갖추며 발전하였다. 중원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이 이동했다고 볼 만한 중원문화의 영향은 찾기 힘들다.

그 다음 기존 전래문헌인 『사기』 『진본기』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진의 분봉 이전의 기록을 관통하는 사마천의 주된 서사 의도는 진의 계보와 함께 진이 분봉되기 이전까지 진의 조상이 중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기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주로부터 분봉을 받은 진의 제후를 기준으로 그 직계 조상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나라는 관심에서 기술하되, 계보를 따라가는 중간에 방계 조상 중 ‘중국’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이들을 추가 기재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본기』의 내용은 마치 진의 조상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사마천은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비록 동일한 영성에 속하더라도 그 여러 지파들은 중국에 거주하기도 했고 이적에 거주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진의 분봉 직전에 해당되는 대략과 비자는 농서의 건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융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는 『계년』 제3장의 기록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사기』 『진본기』와 『계년』은 근본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므로, 양자의 내용 일부

를 적당하게 절충해서는 안 된다. 「진본기」가 진의 조상 및 중원과의 관계를 충실히 기록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계년」은 진이 강대해진 까닭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목적 하에 쓰였다. 둘째, 지금으로서는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계년」에는 여러 기존 문헌의 기록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 확인되므로, 「계년」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계년」의 상엄지민은 비림의 종족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주가 상엄씨를 멸망시킨 이후 종족 분산 정책에 의해 그곳의 사람들을 주의 다른 지역으로 천사했을 뿐이다. 천사한 곳은 서융으로부터 서주를 막을 수 있는 곳, 즉 농산을 넘어가는 교통로의 입구 근처의 진이었을 것이다. 넷째, 「계년」의 상엄지민은 진 분봉 이전에 미리 천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기존의 독법처럼 상엄지민을 뒤편의 ‘진선인’과 붙여 읽게 되면, ‘진선인’은 단지 ‘진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자들’ 즉 진 일반인의 조상 중 일부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필자는 상엄지민과 ‘진선인’을 떼어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진선인’을 진 제후의 조상이라는 정상적 용법으로 읽을 수 있으며, 주의 천사 정책이라는 수동적 방법이 아니라 진이 주체적으로 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진이 춘추시대에 강대해졌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계년」의 서사 목적이다.

참고문헌

【논 저】

㉠ 한국어문헌

- 김병준(2016), 『『사기』 흉노열전의 ‘흉노 前史’ 기록 검토』, 『중앙아시아연구』 21-1.
- 심재훈(2014),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 淸華簡 『繫年』의 周 왕실 東遷」, 『역사학보』 221.
- 왕명기(2008), 이경룡 역,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이유표(2016), 「西周 金文에 보이는 ‘秦夷’와 『繫年』의 ‘商奄之民」」, 『동양사학 연구』 135.

㉡ 기타 동양문헌

- 甘肅省文物工作隊·北京大學考古學系(1987), 「甘肅甘谷毛家坪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87-3.
- 路懿菡(2013), 「從淸華簡《繫年》看周初的“三監”」,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6.
- 戴春陽(1992), 「秦墓屈肢葬管窺」, 『考古』 1992-8.
- 滕銘子(2002), 『秦文化 -從封國到帝國的考古學觀察』, 學苑出版社.
- 藤田勝久(1997), 『『史記』秦本紀の史料的考察』, 同氏著, 『史記戰國史料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呂廟君(2015), 「淸華簡<繫年>版本源流問題」, 『新史料與新史學 -武漢大學第二屆珞珈史學博士論壇會議論文集』.
- 禮縣秦西垂文化研究會·禮縣博物館(2005), 『秦西垂文化論集』, 北京: 文物出版社.
- 廖名春(2012), 「淸華簡『繫年』管窺」, 『深川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2-5; 許兆昌·齊旦旦(2012), 「試論淸華簡<繫年>的編纂特點」, 『古代文明』 2012-4.
- 王子今(1987), 「秦人屈肢葬仿像‘窟臥’說」, 『考古』 1987-12.
- 王學利(2008), 「東西兩犬丘與秦人入隴」, 『秦漢考古文選』, 西安: 三秦出版社.
- 牛世山(1996), 「秦文化淵源與秦人起源探索」, 『考古』 1996-3.

- 劉滿(2005), 「秦漢隴山道考述」, 『敦煌學輯刊』 2005-2.
- 李開元(2016), 「秦始皇第一次巡游到西縣告廟祭祖說」, 『인문논총』 73-3.
- 李學勤(2011), 「清華簡〈繫年〉及有關古史問題」, 『文物』 2011-3.
- _____ (2011), 「談秦人初居“邠吾”的地理位置」, 『出土文獻』 2.
- _____ (2013), 「清華簡關於秦人始源的重要發現」, 『初識清華簡』, 上海: 中西書局.
- 張國藩(2013), 「隴山古道遺址」, 『檔案』 2013-6
- 張俊民(2007), 「簡牘文書所見“長安”資料輯考」, 『簡帛網』(武漢大) 2007.12.08.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757.
- 張天恩(2014), 「清華簡〈繫年(三)〉與秦初史事略析」, 『考古與文物』 2014-2.
- 趙化成(1989), 「甘肅東部秦和羌戎文化的考古學探索」, 『考古類型學的理論與實踐』, 北京: 文物出版社.
- 陳民鎮(2012), 「〈繫年〉“故志”說 — 清華簡〈繫年〉性質及撰作背景芻議」, 『邯鄲學院學報』 2012-2.
- 淺野裕一(2012), 「史書としての清華簡〈繫年〉の性格」, 淺野裕一・小澤賢二, 『出土文獻から見た古史と儒家經典』, 東京: 波古書院.
- 胡平生・張德芳(2001),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
- 陳昭容(2013), 「從文獻與出土文物看早期秦國融入華夏的歷程」, 李宗焜 編, 『第四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出土材料與新視野』, 臺北: 中央研究院.
- 韓偉(1980), 「試論戰國秦的屈肢葬儀淵源及其意義」,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邢文(2013), 「清華簡〈金騰〉與三監」,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3-1.
- 黃留珠(1995), 「秦文化二源說」, 『西北大學學報』 1995-3.

㉔ 서양문헌

Yuri Pines, “Zhou Hisotory and Historiography”, *T'oung Pao* 100-4-5.

원고 접수일: 2016년 7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6년 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6년 7월 28일

中文摘要

淸華簡《繫年》之檢討

— ‘秦東來說’ 批判

金秉駿*

本文通過從幾個角度檢討最近與秦的起源有關的重要資料《繫年》第3章的記錄，來反駁秦的“東來說”。並意圖對最近過度信賴出土資料的研究風潮加以批判，以重讀最古典和最重要的《史記》的記錄。長期以來很多研究者利用《史記》進行研究時，實際上沒有看出司馬遷的真正意圖。他們認為《史記》似乎是把多種關聯史料原樣匯總而成的一本書，並只抽出自己需要的幾條史料加以利用。筆者認為，只有先理解司馬遷的書寫意圖，才能判斷是否信賴《史記》的記錄，而且對選擇性利用考古學資料的研究方式也有反省的必要。這些問題都與《繫年》第3章的記錄有關，所以筆者試圖對其再次加以討論。

所謂秦的“東來說”，以西周時期隴西地區已經受到中原文化的影響為“東來說”的考古學依據，強調屬於同一嬴姓的許多氏族處於東方，進而認為《史記·秦本紀》中秦的祖先在“中國”活動，認為在《繫年》裏出現的“秦之先”似應讀作“秦的祖先”，將商奄之民作為秦的起源來理解。但是，如果依照以下本文的分析來看，可以說“東來說”的大部分的論據並不妥當。

首先，是對考古學資料的再檢討。從秦故地隴西地區的地理環境來看，隴山造成其與中原的地理隔絕，從考古學上看，秦文化也有不同于中原文化的獨特之處。另外，翻越隴山有連接兩者的交通路線，這條路線與

* 首爾大學校 東洋史學科 教授

秦初期的地名和移動路線一致。這條路線還是隴西的秦與中原的西周接觸的地方，也是秦被分封的地方。因此，我以為既往研究中在隴西地區尋找中原文化的影響有點勉強。

其次，是對《史記·秦本紀》的再檢討。考察貫穿于《史記·秦本紀》中秦分封之前的記錄的主要書寫意圖可知，司馬遷在追溯秦的譜系的同時，還著重記載了秦的祖先與中原王朝的關係。秦的祖先以幫助舜禹的功績而受封嬴姓，之後在夏代末期活動于商側，周初以後轉而與周形成友好的關係，結果又受到周的分封。這是司馬遷要說明的一個核心。與秦的祖先同屬於嬴姓的一些支派，因為與中原王朝發生密切的聯繫，也被司馬遷一併記錄下來。而這些支派有的在中國居住，因此秦的起源好像在“中國”。但是，《秦本紀》也明確記載，秦在被周分封以前，秦的本系大駱和非子以犬丘為中心地與西戎居住在一起。

最後，是對《繫年》第3章記錄本身的再檢討。第一，《史記·秦本紀》與《繫年》之間有根本的內容差異，二者有不同的史料來源，《繫年》作者的寫作目的和對史料的取捨也與司馬遷不同。第二，可以確認，《繫年》與既有文獻有明顯的不同內容。《繫年》中的三監不包括武庚（即祿子耿），並且幫助周的東遷不是襄公而是秦仲。因此《繫年》未必全都可信。第三，從《繫年》來看，不能說商奄之民是飛廉的種族，他們只是商奄滅亡之後根據種族分散政策而被遷徙的族群而已。他們被遷徙的地方位於越過隴山的交通路線的入口附近，是西周用以抵禦西戎的地區。商奄雖然被遷徙到這裏，但並不能說他們就是秦的祖先。第四，如果按照既有的讀法來讀，《繫年》中的“秦先人”和史籍中的“×先人”的內涵不同。史籍中的“×先人”均是指某個部族王室的祖先。筆者認為，《繫年》中的“秦先人”的內涵也當理解為“秦王室的祖先”，因此，“是秦先人”之前應當斷讀。這樣一來，《繫年》的全部內容是：通過周成王殺害飛廉及遷徙商奄之民的史實來記述秦與周不和。之後，秦與周的關係好轉，秦的先人世世代代作為周的根幹。西周衰亡平王東遷時，秦也起了很大的作用。因此，春秋以後秦得以非常強盛。